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세 가지 · 진짜 믿음의 세 특징

내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

본문 · 마태복음 9: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저항과 방해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많은 무리로 인해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해

1-1. 물리적 방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예배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정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물리적인 방해는 물리적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핑계 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2. 감정적 방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낙심과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싫을 때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1-3. 영적 방해

1-3-1. 사람을 통한 영적 방해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게 만들고,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 비판과 정죄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1-3-2. 생각을 통한 영적 방해 —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4가지 전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결, 믿음, 순종, 친밀이라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2-1. 능력을 믿는 믿음 —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모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2-1-1. 믿음은 적극적이다 — 참된 믿음은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2-1-2. 믿음은 도전적이다 — 믿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고, 창의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2-1-3. 믿음은 모험적이다 — 믿음은 값을 지불합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2. 성품을 믿는 믿음 —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호와 사랑이 많은 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두려움과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국 인본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2-3. 언약을 믿는 믿음 —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도, 질병도 아니라 죄의 문제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 — 모든 것은 예수로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결국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과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과정도 예수님이시며, 결론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언약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Q1****나를 막은 장애물**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최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물리적, 감정적, 영적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Q2**내 영적 상태의 발견**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어떤 말씀을 통해 나의 갈급함 부족이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Q3**이번 주 믿음의 결단**

오늘 말씀을 받은 후,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언약을 신뢰하며 어떤 부분에서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까?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

